

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		
담당 부서	공항공정책관 항행시설과	책임자	과 장 김동준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생 (044-201-435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) 첫 출발,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성공! - GPS 오차정보 1~1.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, '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3일 “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(KASS)*의 “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” 하였다고 밝혔다.

*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(KASS) :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로 GPS의 오차를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

- 항공위성 및 지상 기준국·중앙처리국 등 시설을 통해 기존 GPS 오차(15~33m)를 1~1.6m로 보정하여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 제공 가능

○ 항공위성 1호기*는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**에서 우리 시각 6월 23일 새벽 6시 50분경(현지기준 6월 22일 18시 50분경)에 발사되어, 위성보호덮개(페어링) 분리,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이후인 7시 18분경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하였다.

* 해외위성 임차(말레이시아 미아셋 통신위성에 항공위성서비스를 위한 중계기 탑재)

** 적도부근에 위치해 위성 발사 시 적은 연료소모 등 최적의 발사조건을 보유

○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에 정지궤도(약 36,000km)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,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'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□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위성 관제실을 찾아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생중계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,

- 위성 발사가 성공한 직후 발사현장(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)에 나가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위성서비스 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받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.

□ 이와 함께, 이날 현장에서는 항공위성서비스(KASS)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“항공위성 과학 기술인 간담회”가 개최되었다.

- 항공위성 서비스(KASS)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진과 (주)KTsat 담당자는 “KASS 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고, 향후 천리안3호와 KPS 사업* 등으로 '35년까지 항공위성 3호기, 4호기, 5호기를 개발할 예정”임을 밝혔다.

* (Korea Positioning System, '35)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정밀한 위치(P), 항법(N), 시각(T)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발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

- 특히, 연구진은 “무선충폭기, 발진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, 항공위성 3호기부터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,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”하다고 말했다.

- 간담회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(주)과 내비게이션 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(주)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KAS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.

- 기업 관계자들은 “UAM은 도심 내 운항,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,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된 KASS 위치정보가 상용화 될 경우 UAM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되고, 차선안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 된다고 전했다.

- 또한,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“미국의 스페이스-X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원천기술과 지원이 밑바탕이 된 것처럼, 민간사업자가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” 는 의견을 덧붙였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위치정보는 무역, 산업, 지적 등 인류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,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하여 국민들께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” 면서,
 - “항공위성 서비스(KASS)는 드론·UAM·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부터 GPS 신호를 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위성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, 위치보정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” 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항공위성 탑재체 등을 국산화하여 우리 기술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,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초정밀 위치, 항법,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(KPS)의 성공적인 개발 및 KPS 기반의 항공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, 민간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강조하였다.